

역대 5위 평균 ‘72.2승’…KIA, 5할 승률이면 안정권

‘가을 야구 마지노선’ 역대 5위 승수로 본 KIA의 현주소

잔여 24경기 9승만 거둬도 유력…‘가을 야구’ 넘어 최종 순위가 관건
상위팀·추격팀과 15경기, 김도영 등 AG 차출, 최대 7경기 공백 변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가을 야구’가 선명해지고 있다. 통합 우승을 차지했던 2021년 이후 2년 만이다.

KIA는 7일 기준 120경기 66승 52패 2무로 4위다. 3위 LG와는 불과 0.5경기 차다. 5위 두산에는 4.5경기 앞서 있다. 6위 NC와 격차는 9경기다.

이제 KIA의 정규시즌은 24경기가 남았다. 현재 잔여 일정은 10월 7일까지 편성돼 있다.

그렇다면 KIA는 몇 승을 더해야 가을야구에 가까워질까.

역대 5위 팀의 승수를 통해 현재 위치를 가늠해봤다.

KBO 리그는 2015년부터 10개 구단·144경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같은 해 와일드카드 결정전도 도입됐다. 5위까지 가을야구 기회를 얻는다.

지난해까지 11시즌 동안 5위 팀의 평균은 72.2승이다.

최소 승수는 69승이다. 2015년 SK가 기록했다.

70~74승으로 5위를 차지한 경우가 8차례로 가장 많았다.

75승 이상은 두 차례다. 2017년 SK가 75승, 2020년 키움에 80승으로 5위를 차지했다.

역대 사례를 보면 70승 안팎부터 가을야구가 보인다. 75승이면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현재 KIA는 66승이다.

70승까지 4승 남았다. 75승까지는 9승이다.

주목할 부분은 남은 경기에서 필요한 승률이다.

KIA가 75승에 도달하려면 남은 경기에서 9승 15패를 거둬야 한다. 승률 0.375다.

현재 시즌 승률 0.559보다 크게 낮다.

남은 경기에서 5할만 해도 12승을 추가한다.

최종 78승이다.

승수만 놓고 보면 가을야구에 상당히 가까워진 셈이다.

여기에 6위권 추격팀이 주춤한다면 시세는 더 빨라진다. 다만 어디까지나 역대 기록을 기준으로 한 가능성이다. 확정 시점은 경쟁팀의 성적이 크게 좌우한다.



지난 5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KT의 경기.마무리 투수로 등판한 KIA 전상현이 승리를 확정지은 후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일정도 가늠지 않다.

상위팀 또는 추격팀과의 맞대결이 15경기다.

잔여 경기 절반을 웃돈다.

3위 LG와 5경기가 남았다. 6위 NC와도 5경기를 치른다. 2위 KT와는 4경기를 만난다. 삼성과도 1경기가 있다.

모두 순위 경쟁과 직결된 경기다.

홉 경기가 많은 점은 긍정적이다.

남은 24경기 중 13경기가 광주에서 열린다.

KIA는 올 시즌 안방에서 강했다. 36승 22패 2무로 승률 0.620이다.

변수도 있다.

아시아게임 야구 대표팀 차출이다.

김도영과 박재현, 성영택은 오는 14일 대표팀

에 소집된다. 결승전까지 오르면 최대 7경기를 뛰지 못한다.

포스트시즌 진출은 확정되지 않았다. 3위 경쟁도 계속되고 있다.

승수를 얼마나 쌓느냐가 관건이다.

‘가을 야구’를 시작할 순위도 달라질 수 있다.

/주홍철 기자

“이겨라, 제주”...“끊어라, 무승”

광주FC, 오늘 제주와 홈 맞대결

프로축구 광주FC가 홈에서 제주SK FC를 상대로 기나긴 무승 탈출에 도전한다.

광주는 9일 오후 7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와 하나은행 K리그1 2026 28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 6일 김천상무와의 원정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다.

홉 개막전 인천 유나이티드와 경기 이후 25경기째 (9무 16패) 승리를 신고하지 못한 광주는 25경기 연속 무승으로 K리그1 1·2부 통합 최다 연속 경기 무승 타이 기록을 작성했다.

광주는 김천과의 경기에서 경기 초반 주도권을 내주며 두 골을 먼저 허용했지만, 경기 막판 연이어 득점하며 무승부를 만들어냈다. 특히 올 시즌 처음으로 두 골 차 열세를 극복하고 동점까지 따라붙으며 경기 막판 집중력과 뒷심이 생겼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제 김천전에서 살려낸 희망의 불씨를 제주전 승리로 이어가야 한다.

특히 외국인 공격수 아이데일과 프리드슨은 김천전에서 나란히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의 극적인 무승부를 이끌었다.

최근 공격진의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는 만큼 제주전에서도 이들의 활약에 기대가 모인다.

김천전 후반 교체 투입된 정지훈 역시 활발한 움직임과 적극적인 슈팅으로 공격에 힘을 보태며 문민서의 부상 공백을 메웠다. 무엇보다 정지훈은 프로 데뷔 이후 기록한 두 골 모두



광주FC 아이데일이 지난 6일 열린 김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2로 뒤진 후반 21분 추격골을 터뜨린 후 정지훈의 축하를 받고 있다. <광주FC 제공>

제주전에서 기록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다시 한번 ‘제주 킬러’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가용 자원을 바탕으로 제주의 공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봉쇄하느냐가 이번 경기의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는 후반이 들어 리그에서 단 1패만을 기록하며 하위권에서 5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는 등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네게바와

아이아스, 치나리 등 외국인 공격진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 광주의 집중력 있는 수비가 요구된다.

하지만 상대전적에서 광주는 제주와의 역대 맞대결에서 12승 8무 9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도 6승 2무 2패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홉에서 다시 한번 제주를 넘어 상대전적 우위를 이어가는 동시에 절실한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각오다. /박희중 기자

팬들에게 받은 사랑...아름다운 나눔으로

KIA, 9-11일 ‘TIGERS CSR 위크’

KIA 타이거즈가 9-1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NC, SSG와의 홈경기를 팬대상 사회공헌활동 주간인 ‘TIGERS CSR 위크’로 지정해 특별한 행사를 진행한다.

TIGERS CSR 위크는 지난해 처음 선보인 행사로,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와 뜻깊은 곳에 나누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팬들의 큰 호응을 얻은 데 힘입어 올해에도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가게 됐다.

첫 번째 행사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우를 초청한 시구·시타 행사다. 9일 경기에는 문정우, 김한빈 어린이가 각각 시구와 시타를 한다. 문정우 어린이는 골수이형성증후군을 극복해 현재 완치된 상태이며, 김한빈 어린이는 혈구 탐식성립종 조직구증으로 현재 투병 중이다.

11일 경기에는 김유민 어린이가 마운드에 오

른다. 김유민 어린이는 생식세포암 4기 투병중으로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지만, 시구를 위해 꾸준히 재활에 매진했다. 이날 마운드에 올라 직접 공을 던지며 투병중인 모든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10일 경기는 무등산데어로 치러진다.

시구는 무등산국립공원 깃대종인 수달 마스크트 ‘달공이’가, 시타는 노회동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이 맡는다.

올 시즌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외국인 선수 네일, 올리, 카스트로가 준비한 특별한 행사도 마련된다. 세 선수는 11일 경기에 한부모 가정 및 보육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어린이 150명을 초청해 단체 관람을 지원한다. 이날 초청된 150명은 행사를 기획한 선수들을 직접 만나 팬 미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주홍철 기자

광주체육 발전·지역사회 체육문화 활성화 기여 공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광주은행 감사패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광주체육 발전과 지역사회 체육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정일선 광주은행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

광주은행은 지난 7일 본점에서 감사패 전달식을 갖고 전갑수 회장이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유소년 선수 육성, 지역 체육인들의 복지 및 권익 향상 등 광주체육 발전을 위해 힘써온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갑수 회장은 취임 이후 지역사회와 기업, 체육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과 지역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 여건 마련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광주은행 역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광주체육 발전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광주체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체육문화 조성에 큰 역할을 해준 전갑수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광주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



어가겠다”고 말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뜻깊은 감사패를 주신 정일선 광주은행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광주은행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광주체육에도 든든한 힘이 돼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감사패는 개인적인 상이라기보다 광주은행과 광주체육이 함께 만들어 온 소중한 동행의 의미”라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대표 향토은행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순천시청 이희성·윤지환, 男複 우승

한국실업정구 추계연맹전...전남광주특별시청 김여빈 여자단식 정상

순천시청 정구팀 이희성·윤지환이 2026년도 NH농협은행 한국실업정구 추계연맹전에서 남자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이희성과 윤지환은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 농협대학교 정구장에서 열린 남자복식 결승에서 이도근(대전동구청)·민영(부산진구청) 조를 5대4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희성-윤지환 조는 경기 초반 2대4로 뒤지며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강한 스트로크에만 의존하지 않고 낮게 떨어지는 볼과 로빙, 코스 변화를 적절히 섞는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내리 세 게임을 파내며 극적인 역전승을 완성

했다.

여자 단식에 출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김여빈은 결승에서 국가대표 출신 임유림(경남체육회)을 4대2로 꺾고 정상에 우뚝 섰다.

김여빈은 결승에서 상대의 쇼트 플레이에 대응해 짧게 떨어지는 볼 처리에 집중하는 한편, 공격에서도 무조건 강하게 치기보다 코스와 각을 만들어가는 안정적인 플레이로 상대를 압도했다.

그동안 복식 후위로 주로 활약한 김여빈은 이번 대회에서 처음 단식에 출전해 곧바로 우승까지 차지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실업 4년 차



NH농협은행 한국실업정구 추계연맹전에서 남자복식 우승을 차지한 윤지환(왼쪽)과 이희성

<전남도체육회 제공>

인 김여빈의 개인전 첫 우승이기도 하다.

/박희중 기자